

사내 하청 노동자의 건강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임 상 혁

최근 들어 현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원청기업과 하청기업간의 상생'을 강도 높게 이야기하고 있고, 언론의 호응도 높은 편이다. 한국에서 하청(subcontracting)은 최근의 보도처럼 주로 원-하청간의 불균등한 관계를 기반으로 불공정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보도되고 있다.

안전보건 영역에서 원-하청의 불균등한 관계 역시 존재하고 있는데 주된 문제는 원청기업의 제반 위험을 하청기업으로 전가되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원-하청 관계에서 안전보건상 약자인 중소기업 하청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외국 문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한국에서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한다.

동일한 작업장에서 진행되는 하청인, 사내하청은 비용 상승 요인을 전가하는 기전으로서의 하청의 일반적 특징 외에도, 동일한 작업장에서 원청 사업주가 제공하는 시설, 설비, 원자재, 공정을 이용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원청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즉 사내하청 노동자는 제반 위험의 이전을 원하는 기업

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였으므로 사내 노동조건이 열악하다. 정규직 노동자가 기피하는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공정에서 원청 사업주는 사내하청을 사용하고 있어 위험작업의 개선과 원청 노동조합의 저항에 따르는 비용을 절약하고 있다. 또한 사내하청의 경우, 업무에 대한 지시를 원청이 직접 관여하고 있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과 관련된 작업시설, 설비가 원청 사업주의 소유이며, 작업공정과 작업방식의 결정도 원청 사업주가 행하고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 책임은 하청업주에게 지우고 있어, 원청 사업주는 하청노동자의 안전보건에 거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면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실태는 어떠한가? 건강실태에 앞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나라에 사내하청이 몇 개나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몇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노동 통계 분류에 사내하청업체에 대한 분류가 없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국내의 산재통계 자료에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자료를 얻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문제에 대한 연구 논문 역시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를 위한 노동정책, 안전보건정책이 없다는 것이다.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내하청 노동자와 비슷한 것 같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의 건강실태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2008년 노동부 산재 통계를 분석해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재해율은 1.06%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재해율 0.27% 보다 약 4배 높다. 사망률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만명당 2.01명이 사망하여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사망률보다 약 2배 정도 높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과 비슷한 사내하청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원청 사업장보다 높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 것 같다.

2005년 발표된 박종식(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한 대규모 사업장에서 생산직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산재율을 계산해보면 재해율이 직영은

2.94. 하청업체는 0.75로 나타나고 있어, 원청이 사내하청업체에 비해 재해율이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원청의 경우 근골격계질환같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자가 240여명인데 비해 사내하청 노동자는 단 1명도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같은 규모의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과는 달리 다치거나, 병들거나, 죽지도 않는 아주 건강한 상태로 일하고 있으며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가 원청의 대기업 노동자보다도 4배 이상 건강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더럽고 힘든 일은 다하면서, 월급은 반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실제 하청노동자들이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재해율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이제 질문은 동일한 사업장에서 상대적으로 힘든 일을 하고 있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재해율이 왜 원청의 정규직 노동자들 재해율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는가로 바뀔 수밖에 없다.

거의 대부분의 사내 하청이 안전 및 보건관리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산업보건인은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어떠한 서비스가 이들에게 필요한지 깊은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